

독자로서의 작가*

— 최인훈 『화두』의 문학독서 현상학 —

김 근 호**

요 약

최인훈의 『화두』는 독서에 관한 소설이다. 압도적으로 서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인공의 독서행위는 작품의 주제 해석을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화두』에서는 문학 독서가 비문학 독서와 다른 성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막대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화두』에 형상화된 문학 독서의 참된 의미를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다.

『화두』의 주인공은 자신의 독서와 창작이 갖는 근본적인 가치를 ‘문학사의 의식’에서 찾고 있다. 문학사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선배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깊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미적 전유의 태도로 드러난다. 작품에서 그러한 독서행위는 근본적으로 타자로 빙의하고 환생하는 체험으로 서사화되는데,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열락’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열락의 독서는 궁극적으로 윤리성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선배 작가와 그의 작품을 독자 자신에게 빌려 와 자신을 해방시키는 체험이 독서의 열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화두』의 문학 독서가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이고 화해로운 조화

* 이 논문은 제53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학술대회(2018년 5월 26일,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논문의 구상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준 김경은 선생(서울대학교)께 감사드린다.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인 것이다.

최인훈은 『화두』를 통해 소설 독서의 한 가지 좋은 모델을 구축해놓았다. 즉 『화두』는 작가(인물)와 독자가 돌이되 하나이고 그렇지만 결코 하나가 아니라 돌이면서 스스로 다름을 찾아나가는 소설 독서의 모델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화두』는 작가 최인훈이 한 사람의 독자로서 문학 독서의 윤리성과 함께 문학사적 이정표를 주체적으로 모색해나간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최인훈, 화두, 독자, 문학 독서, 문학사의식, 미적 전유, 열락, 윤리, 정체성, 주체성

목차

1. 머리말
2. 문학사의식과 미적 전유
3. 열락의 독서와 윤리
4.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
5. 맺음말

1. 머리말

최인훈의 『화두』가 1994년 세상에 등장했을 때, 이 작품을 두고 소설이다 아니다 식의 비평적 논란이 있었다.¹⁾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면서 『화두』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문학적 가치와 위상을 고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²⁾ 최근에 와

1) 당시 『화두』를 두고 '소설 이전의 것'이라며 폄하한 바 있는 윤지관이 이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윤지관, 『상품인가 물건인가: 국가 경쟁력과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1994 여름호.

2) 김인호는 1995년에 발표한 글에서 『화두』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

서는 『화두』를 두고 ‘자기 반영적’ 소설로서 ‘메타 픽션’ 혹은 ‘메타적 글쓰기’로 규정하면서, “작가의 전 생애의 경험과 20세기 역사를 기록하는 총체적 텍스트”라는 긍정적인 해석에 도달하고 있다.³⁾ 『화두』는 이른바 ‘소설가소설’의 형식을 띠면서 작가의 생애에 거의 일치하는 자전적 이야기 전개나 내용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작가는 분명히 소설이라고 밝힘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서사적 인과성이나 현실주의적 흐름의 자연스러운 서사 전개를 거부하고 있어, 서사가 파편화되었다고 볼만한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서사의 구성과 체계가 복잡한 만큼 해석이 열리고 또 다양해진다. 나아가 이 작품은 한국의 식민지 경험과 그 이후 탄생한 분단 체제 그리고 그 속을 가로지르는 세계체제에 대한 깊은 인식까지 등, 매우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바, 이런 점이 『화두』에 대한 해석의 곤란함과 동시에 풍부한 즐거움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 『화두』는 장대한 서사로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독후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화두』에서는 평생에 걸쳐 지니게 된 책에 대한 주인공의 집착과 애정 그리고 독서행위가 서사 전개 전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⁴⁾ 『화두』는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조명희의 『낙동강』의 앞부분으로 정돈되어있다. 비문학 독서도 종종

체제의 종말과 그에 따른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당혹감으로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서사 형식의 고정관념의 해체를 통해 구현해낸 성과물이라 고평하였다. 김인호, 『변화된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 『화두』』, 『해체와 저항의 서사: 최인훈과 그의 문학』, 2004, 200-201면.

3) 연남경, 『최인훈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혜안, 2012, 248면.

4) 『화두』의 주인공은 일인칭 화자이면서 작가로서의 삶을 되짚어보는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실제 최인훈의 삶을 연상하게도 하는, 즉 자전적 성격이 매우 짙은 인물이다. 이 때문에 기왕의 몇몇 논의들에서는 ‘소설가 화자’와 같은 용어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인공이 허구적 가공을 일정 부분 거친 ‘인물’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바,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주인공’이라는 통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등장하지만, 『화두』의 시작과 끝을 공통적으로 가로지르는 작품이 소설 「낙동강」이라는 사실은 『화두』에서의 핵심 독서가 바로 문학 독서라는 점을 말해준다. 주인공이 북한의 W시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읽었던 조명희의 「낙동강」은 작가인 그가 평생에 걸쳐 소설가가 되어 책 읽고 글쓰는 삶을 선택하도록 추동한 가장 큰 마음의 동인이다. 주인공은 작가로 등단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책으로 발간된 선배 문인들의 문학작품을 반갑게 만나며, 그들의 삶과 문학을 하나하나 깊이 이해하고 보듬어보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어느 곳에 가든 또 어디서 살든 주인공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와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서관이나 책방을 꼭 들러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느끼며 사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화두』의 독자는 바로 그러한 주인공의 독서를 따라 읽어가면서 중층적인 독서를 수행하게 된다.

기억에 바탕하여 작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 이 장대한 작품에서 작가는 한 가지 모델이 될 만한 소설 독서의 과정을 펼쳐 보인다. 말하자면 소설 독서의 현상학이 이 작품의 서사적 기둥이다. 『화두』에서 매우 특징적인 독서 현상은 선배 문인들에 대한 깊은 감정이입을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치환하거나 혹은 비교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는 방식이다. 한국현대소설사에서 이토록 선배 작가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작품에서 보여준 작가가 있었을까? '영향에 대한 불안'과는 전혀 반대편에서 있었던 작가가 최인훈인 것이다. 오히려 최인훈은 그러한 영향 관계 자체를 적극적으로 노출하고 서사의 형식으로 표상함으로써 90년대로 접어드는 문학사의 곤란한 상황에 대한 자기 진단적 수행성을 표출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화두』에서 그것은 서사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 『화두』에 나타난 책과 책읽기에 주목한 논의

들이 몇몇 등장했다.⁵⁾ 대표적으로 권성우에 따르면 『화두』는 “한마디로 책과 독서에 대한 소설이다.”⁶⁾ 단정적 표현인지라 다소 비약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작품에서 책과 독서행위가 서사 전개에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작품의 상당한 양과 질을 차지하는 책과 독서라는 모티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화두』에 관한 연구의 흐름에서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 하나를 찾아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화두』의 주인공이 읽는 책을 둘러싼 공간이나 책의 유형 분류 등에 한정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화두』에서는 주인공이 ‘운동’이나 ‘시간’ 등의 개념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전진하는 삶의 역동성에 대한 인식을 자주 드러낸다. 또 단순히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주인공이 읽고 느끼며 관련 문제들을 사유하는 내밀한 속사정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바, 책보다는 책을 읽고 느끼고 사유하는 행위, 즉 ‘독서’가 이 작품의 서사 근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주인공의 독서행위는 『화두』의 서사를 가로지르는 핵심 모티프인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화두』에 나타난 주인공 화자의 독서행위를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최인훈이 『화두』에서 도달한 주체성의 참된 의미를 독서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회상이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의 독서 대상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자본론』 등의 사회과학 서적 등도 있는데, 그런 비문학 서

5) 정미지, 「『화두』의 자전적 글쓰기와 ‘책-자아’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정호웅, 「최인훈의 〈화두〉와 일제 강점기 한국문학: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제45호, 한중인문학회, 2014; 권성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책과 독서에 대하여」, 『우리文學研究』제49집, 우리문학회, 2016.

6) 권성우, 앞의 논문, 210면.

적에 대한 독서와는 달리 문학 독서는 자신만의 고유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주인공의 문학 독서는 문학사적 맥락의 깊은 이해에 바탕한 문학적 수용과 생산을 통합적으로 실천해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작가가 추구한 근대성 비판과 주체성 모색이라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화두』의 주인공이 실천해나간 문학(특히 한국소설) 독서로 분석 대상을 좁혀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문학사의식과 미적 전유

『화두』의 주인공은 독서를 매우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는 어떤 곳에 가든 책방을 찾아가서 책을 읽는다. 이 작품의 서사를 통틀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귀한 고본을 구하면 특히 애정을 갖고 그 시대와 장정까지 섬세하게 느껴가며 책 전체를 읽는다. 주인공이 자주 들리는 헌책방에서 오래된 『오랑캐꽃』을 구매하는 장면, 또 그 책을 자신의 대학 연구실에 가져와 살펴보는 장면이 2권의 앞부분에 나온다. 그 대목을 보면, 슬로모션처럼 주인공이 책의 안팎 하나하나 섬세하게 느끼듯 책과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이면서도 정신적인 만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책은 화자에게 한낱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 담긴 육체처럼 조심스럽게 다루고 소통해야 하는 대상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책과 독서에 대한 이러한 주인공의 태도는 W시로 이주한 후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구체화되어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한다. W시의 고등학생 시절을 회상하면서 주인공은 “소설의 세계는 여전히 나에게 ‘현실의 거울’이 아니라, 현실에서 왔거나 말거나 말의 힘만으로 홀연히

있게 되는 ‘그 자신으로서의 현실’이었고 그렇게 길든 독서 방식은 여전히 나를 이끌었다.”(2권, 83면)⁷⁾라고 한다.

『화두』에서 일제강점기 선배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맨 처음 독서 경험은 W시 고등학교 1년 학생 때 읽은 조명희의 『낙동강』이다. 이 작품에 대한 독서의 기억은 공감적 독서와 주체적 자기실현으로 나타난다. 주인공의 주체적인 독서는 특히 『낙동강』의 ‘로사’에 대한 공감적 독서와 맞물리는데, 여기서 작중 인물의 행위와 성격에 대한 주체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자기 주도적 성장의 면모를 보여준다.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처음 접하게 된 임화의 시 『우리오빠와 화로』도 좋은 것이었지만, 조명희의 『낙동강』은 주인공에게 훨씬 구체적인 실감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화두』에서 『낙동강』과의 만남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낙동강』의 부분적인 인용을 다소 길게 하는 것은 그런 점을 나타내주는 표지이기도 하다. 작문 숙제로 주인공은 모작으로 보이는 감상문을 썼고, 그 감상문에 대해 교사는 신진작가의 수준이라고 고평해주었다. 주인공은 『낙동강』으로 인해 “나는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은 박성운과 로사가 실지로 만난 사람들처럼 느꼈다. 그들이 나를 해방해주었다고 나는 생각하였다.”(1권, 103면)라고 적고 있다. 주인공이 느낀 실감과 해방감은 이 작품에서 생명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인공은 그러한 현상을 회상하면서 이미 “현실과 ‘책읽기’와 ‘글쓰기’ 사이를 잇는 싹뿔이 생겨나는 움직임 비슷한 일이 국어 시간에 일어났다.”(1권, 91면)라고 규정한다.

7) 『화두』는 1994년 민음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이후,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2004년 문이재판을 거쳐, 2008년 ‘최인훈 전집’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종판이라고 볼 수 있는 『화두(1권/2권)』(문학과지성사, 2008)을 저본으로 삼고자 하며, 이하에서 인용할 경우 본문에서 권수와 면수만 밝히기로 한다.

그런 맥락에서 『화두』의 문학 독서는 주인공이 ‘문학사의식’이라고 지칭하는 ‘표현 공동체’의 논리에 가닿게 된다. 주인공이 표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에 따라 엄혹했던 시절을 견뎌낸 선배 문인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일은 궁극적으로 선배 문인과 자신을 상호 대화적 관계 속에 위치시키는 일이 된다. 그러한 실천의 가장 밑바탕에는 공감(共感, empathy)이 중요한 감정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만나서 읽었을 때, 주인공은 “나는 이 여러 겹의 구체적 분화의 모든 고리에서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보기를 만난 것이었다.”(2권, 53-54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은 1차적으로 친근성이었지, 가장 높은 가치를 기준한 가치평가는 아니었다.”(2권, 54면)라고 부연한다. 이런 입장이 바탕이 된 소설 독서는 “우리 문학의 연속성—민족의 존립과 민족어의 존립”을 전제로 “존립이란 우선 이것들의 생존을 긍정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존재방식이므로 생명의 원칙 그것이다.”(2권, 54-55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인공은 박태원의 소설을 매우 공감적으로 읽었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친근함을 바탕으로 주인공은 박태원의 소설에 대해 “그들의 가난, 그들의 우울, 그들의 권태—그런 표정의 초상이 과연 선택을 거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을까?”(2권, 55면)라며 의문을 표하면서 “적들이 점령한 땅에서 발행되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한계와 싸우고 있는 긴장이 보인다.”(2권, 55면)라고 공감적 독서의 결과를 고백한다. 이런 방식은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대한 독서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 이태준의 장편소설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지만 그의 단편소설을 읽는 즐거움은 매우 컸다고 고백한다.

『화두』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문학 독서의 기본 태도는 그가 작품 속에서 직접 거론하는 ‘문학사의식’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 『화두』에서 말하는 ‘문학사의식’에 따른 문학사의 연속성이란 선배 작가와 후

배 작가 사이에 서로의 존립을 긍정하면서 상호 대화하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과 동시에 후배 작가가 주체적인 문학세계를 모색해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 나타난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일종의 “진화론적 열림”(2권, 56면)의 성격을 지닌다. 작가는 작품의 머리말에서 다음처럼 기록해놓았는데, “‘부활’과 ‘윤회’는 인류에게 꼭 필요한 환상이고, 희망이고, 꿈이었다.”(1권, 14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머리말에서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서 슬프다.”라는 말과 함께 어울리면서 최인훈의 문학 행위가 필연코 앞선 작가들의 문학에 대한 연장선이자 진화론적 발전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머리말에서 최인훈은 “예술은 약속에 의해서 기억의 엄청난 증폭과 초월이 허락되는 ‘기억’ 놀이다. 예술 속에서 개인은 생애를 몇 번씩이나 ‘부활’할 수 있고 ‘윤회’할 수 있다.”(1권, 16면)라고 규정한 바도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실제로 『화두』는 조명희, 박태원, 이태준 등을 주인공 자신의 독서를 통해 부활시키고 윤회하도록 하는 문학적 실천을 입증해 보인다. 심지어 소련 붕괴 이후 주인공은 러시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조명희의 환생을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화두』의 주인공에게 선배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읽기는 문학사적 계승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문학자 사이의 미적 연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광수의 『흙』에 대한 독서 기억에서처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비판적 독서 역시도 문학사의식의 실천에 해당한다. 여기서 『화두』의 주인공은 『흙』에 등장하는 ‘유순’의 순종적 행위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떤 방식이든 거론함으로써 문학사적 연결 관계를 보이거나, 한 사람의 독자로서 그를 적극적으로 호명하고 기억함으로써 문학사의 한 흐름 속에 위치 지어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독서행위는 『화두』의 주인공이 대상 작품을 자신의 삶으로 이끌어들이는 적

극적인 읽기를 실천하고 그 의식의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독서과정 자체가 하나의 서사 생산이라는 수행성을 낳고 있다. 이를 두고 독서의 '미적 전유'라고 부를 만하다.⁸⁾ 다음은 『낙동강』에 대한 최인훈의 독서와 그 독서에 대한 기억이 갖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서 깊은 이해와 공감에 바탕한 미적 전유를 잘 보여준다.

『낙동강』을 생각할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오동나무 잎새 소리와 책장에 어룡지던 나무 그림자가 꼭 끼어든 것은, 거기가 W시 이외의 어떤 다른 곳도 아니고, W고등학교 1학년 교실 아닌 어떤 다른 장소도 아닌 그 자리에서 읽은 『낙동강』이라는 뜻일 테고 그래서 그때 그 자리의 나와 그리고 거기다 『낙동강』을 합친 어떤 사건이 '나의 낙동강'이다.(1권, 24면)

(…중략…)

지명에 따라 돌아가며 읽는 사이에 『낙동강』은 거기 나타났다가보다 우리는 모두 『낙동강』 속에 있었다.(1권, 26면)

이 작품에 나타나는 그러한 전유의 면모는 장차 『화두』의 주인공이 '문학사의식'에 대한 정돈된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쌓이는 문학 독서 체험의 기초 단위들이 되고 있다. 그러한 포개짐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리는 바로 선배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한 공감이고 미적 연대의 태도이다. 『화두』의 주인공은 자신이 읽는 소설의 인물과 해당 작가의 마음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화두』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독서 과정은 미적 동일시에 바탕한 미적 전유의 현상

8) 전유(專有, appropriation)는 텍스트 이해와 해석의 방식으로서 세계 속에 흩어진 텍스트를 붙잡아 읽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폴 리콥르는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전유의 과정에서 독자 자신의 '인격적 참여(personal commitment)'가 필수적으로 관여한다고 했는데, (폴 리콥르, 박병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266면)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최인훈의 『화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마음의 현상학이 『화두』의 서사가 되는 셈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문학 독서는 비문학 독서, 대표적으로 『자본론』을 읽는 경우와는 확실히 구분된다. 예컨대 주인공은 1970년대 초반 미국 체류 중에 영문판으로 출간된 『자본론』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음처럼 그 독서의 의미를 요약한다. “이 독서는 영어의 ‘맛’을 음미한다는 능력이나 거기서 얻어질 기쁨과는 다른 성격의 읽기일 수 있음이 알려졌다. 그것은 ‘논리’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그런 말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어서 이것이 취하고 있는 언어형태는 (이 경우에 영문 표현은) 에스페란토라고 생각해서 무방하다는 발견이었다.”(1권, 474면) 하지만 앞서도 살폈듯이, 한국의 선배문인들이 쓴 문학작품을 읽는 경우는 주인공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화두』의 주인공이 문학사의식을 유달리 인식하고 작가로서의 자기 삶이 갖는 의미를 특별하게 파악했음을 잘 말해준다. 한국적 특수성과 문학으로서의 보편성 사이에 위치한 자기 인식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배문인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주인공의 독서는 공감과 연민 등의 동업자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공감은 작품과 작가의 사상을 따라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 작가이자 독자인 최인훈은 『화두』에서 감정의 공동체로 가기 위하여 일제강점기 선배 문인들의 작품에 깊은 공감과 애정을 보여주면서 문학 독서의 좋은 모델 하나를 구축해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의 문학사의식이란 감정 공동체에 대한 의식의 지향성을 의미하고, 그것의 미적 실천이 바로 미적 전유로 형상화되는 문학 독서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열락의 독서와 윤리

『화두』의 주인공에게 존재하는 것은 시간일 뿐인데, 이로 인해 삶이란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독서도 운동이고 글쓰기 역시 운동이다. 독서는 언어를 통해 과거의 지식과 지혜를 만나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터득하는 활동이다. 스스로 구체적인 지점들을 찾아서 열심히 추동해나가는 자기 발전적인 운동이다. 독서는 매우 효율적인 문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기술인 것이다. 『화두』에서 주인공은 생존의 근본형식은 ‘낭비’에 있다고 하면서, “낭비를 줄이는 것을 문명의 진화라고 불러도 되겠다.”(2권, 325면)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명의 진화는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서, 인간이 생명의 낭비를 다소나마 줄이는 힘을 키워왔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책과 독서로 설명할 수도 있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인다. 생존의 근본형식에 간하지 않고 독서를 통해 독자는 스스로를 타자 속으로 삼투시켜 궁극적으로 생명 현상의 족쇄를 풀고 나가는 것, 즉 해방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문학 독서는 『화두』의 주인공이 공감을 바탕으로 작품을 거울삼아 자기 삶과 마음을 확장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것은 인격적 결합, 예컨대 『낙동강』의 박성운에서 로사로 이어지는 혁명의 사상이 『화두』의 주인공인 독자 자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실로 ‘박성운’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지도원 선생이지, 작문 선생 쪽이 아니다.”(2권, 94면)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러한 공감적 동일시가 지도원 선생과 같은 모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자각에 도달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지도원 선생이 아니라 작문 선생 쪽으로의 길을 택한다. 『낙동강』의 감상문 쓰기에서 보듯이 공감을 느끼는 선배 문인들의 소설을 깊이 읽고 관련된 모작을 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화두』의 주인공은 박태원을 만

나 깊이 읽고 공감하며 자신의 서사를 새롭게 창조한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러시아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이태준의 『해방전후』에 등장하는 주인공 ‘현’의 마음도 추체험하며 정세에 대한 순진한 생각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화두』의 주인공이 책읽기, 특히 문학 독서에 강렬한 집착을 보이는 것은 이 작품의 맨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기도 하면서 작품이 끝날 때까지 종종 등장하는 중학생 때의 ‘자아비판회’와 고등학생 때의 ‘문학 수업’과 관련이 깊다. 우선 월남하기 전 중학생 시절 경험한 ‘자아비판회’는 『화두』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어릴 적 마음의 상처로 작용하고 있다. 그 상처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소통의 상처이다. 개인의 자율성은 없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음과 언어의 자유조차 미리 대답이 정해진 공동체의 강압적인 소통 방식에 의해 꺾여나갔던 것이다. 『화두』의 주인공은 단힌 공동체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이다. 주인공은 “비판회가 끝나고 밤길을 돌아오면서 나는 과수원 울타리 옆에 주저앉아 몇 번씩 토했다.”(1권, 52-53면) 여기서 구토는 자기 상실의 극단적 체험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러한 소통 방식을 두고 “만일 중대한 사건이면 그것은 학교 밖에서 조사할 성질일 것이고 그 이하의 수준이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할 것인지. 사람이 제 입으로 자기 잘못을 대중 앞에 털어놓는다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그러기에 종교라는 제도가 고안되었고 그 속에서도 특별한 양식을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아닐까.”(1권, 69-70면)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화두』의 주인공은 고등학생이 되고서는 국어수업 시간에 조명희의 소설 『낙동강』을 만나면서 작가로서의 잠재적 가능성을 교사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어린 시절 주인공이 경험한 그 가능성의 경험은 문학 독서가 만들어내는 열락(悅樂)의 최초 경험인데, 그래

서 그 의미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화두』를 통틀어 분명한 것은 『화두』의 주인공에게 열락이란 문학 독서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체험이라는 사실이다. 『화두』의 주인공은 「낙동강」의 박성운 및 로사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라는 과제를 어렵듯이 인식하게 된다. 비판회에서 소동이 고통스러웠던 『화두』의 주인공은 그 혁명적 실천을 미적으로 자유로운 문학의 세계에서 수행해나간다. 특히 그는 조명희 같은 선배 작가처럼 현실 관여성이 높은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박성운과 로사의 이념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실제 역사가 전개되어버린다. 이러한 현실은 『화두』의 주인공이 특히 비슷한 처지의 일제강점기 선배 문인들의 소설을 공감적으로 읽어 나가게 한 동인이 된다. 그러한 공감적 독서 과정에서 주인공은 미적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문학 향유를 통한 미적 해방이란 『화두』의 주인공이 작품의 후반부에 가서 도달한 결론, 이른바 ‘열락(悅樂)’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열락은 타자와의 결합 혹은 동일시 체험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화두』의 주인공이 오랜 문학 독서의 경험에서 깨달은 바인데, “문학에서의 열락은 ‘공동체적 감정’과 ‘공동체적 이성’의 어떤 미묘한 일치, 상호 삼투 상태에 의해서 가능해진다.”(2권, 393면) 작품의 주인공은 문학의 고유한 감정이란 반드시 공동체적 이성에 따라 현실의 객관적인 등가물에 연결될 때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2권, 393면) 그런데 주인공은 그러한 문학적 열락이란 ‘빙의(憑依)’ 혹은 ‘환생(還生)’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2권, 226-227면) 문학 독서란 작가의 마음을 데려와 자신의 삶 속에서 연장하여 생성·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는 믿음인 셈이다. 이는 『화두』의 주인공이 예술의 가치란 근본적으로 상상의 즐거움(열락)에 있다고 보는 신념에 기반하는데, 예술 작품의 가치란 작품을 구성하

는 감각 요소들이 주는 실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그러한 감각 요소들이 수용자의 내부에 발생시키는 상상적 경험의 즐거움이라는 콜링우드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다.⁹⁾ 『화두』의 주인공은 작품의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인격적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전이시켜가는 상상적 경험에서 열락의 본질을 찾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이 작품에 나타난 문학 독서가 윤리성을 갖출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된다.

좀 더 나아가 『화두』의 주인공은 이태준의 작품을 읽을 때 자신이 느끼는 열락이 작가의 열락이었을 수 있겠다고 추정해보기도 한다.

어찌 보면 상허가 슬픔을 즐기고 있는 의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좀더 생각해보고 싶다. 순수한 ‘열락 悅樂’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강박한 사회에 삶을 받았다는 조건 때문에, 윤리적 책임을 보장하는 예술적 장치가 되어 있는 쾌락조차도 물리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생각에 끝이끝대로 충실하다면 예술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은 슬픔이 아니라 묘사와 감상의 기쁨이며,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푸념하는 표현의 기쁨이기 때문이다.(2권, 60-61면)

공동체적 이성에 따라 역사를 염두에 두되, 작가에게는 궁극적으로 공동체적 감정에 따르는 것이 문학적 소명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문학의 윤리에 대한 나름의 소신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은 『화두』의 주인공이 피력하는 예술관, 즉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을 묘사하기 위하여 창작자의 마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와 감상자의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 현실이 동원되는 것이라는 생각과 일치”(1권, 140면)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9) R. G. 콜링우드, 김혜련 역,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고려원, 1996, 180면.

예술의 가치란 상상의 체험에 있다는 콜링우드의 예술관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화두』에서는 예술이란 근본적으로 향유자를 미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선배 문인들의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그러한 미적 해방을 경험한다고 『화두』의 주인공은 고백한다. 그것이 바로 『화두』의 주인공이 몸소 입증해 보이는 주체적인 문학 독서의 윤리이다.

그런데 『화두』에서는 왜 작가의 책읽기 특히 선배 작가들의 문학 작품 읽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 그것은 근대 이후 문학 읽기와 쓰기가 직능 분화를 해온 것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직능 분화의 과정에서 작가의 열락과 독자의 열락은 서로 겹들기도 하면서 깊은 관련성이 약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문학이 소외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다는 비판적 인식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인훈 식의 새로운 글쓰기는 쓰기 내부에 독서를 끌어안음으로써 독서가 곧 글쓰기와 일치하는 경지를 열어 보인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말처럼 '낭비'를 줄이려는 시도인 것이다. 거기에 서사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독서에서의 공감이라는 감정이다. 주인공은 조명희와 박태원의 작품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보인다. 반면에 이광수와 이태준의 작품에 대해서는 순진성에 따른 파탄이라는 식의 비판적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비판적 인식에 앞서 해당 작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작품의 인물과 작가의 마음에 대한 능동적인 감정이입을 수행한다. 이런 점을 보면, 『화두』의 주인공은 근본적으로 선배문인들에 대해 어두운 시대를 문학을 통해 헤쳐나간 동업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존중과 긍정의 감정으로 포용하려는 마음가짐을 분명히 내비치고 있다.

나아가 『화두』의 주인공이 독서 과정에서 작중 인물에 자신을 빙의하는 모습은 독서도 하나의 연기(演技), 즉 잘 빚어진 예술의 하

나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때 해체론적 입장에서 최인훈 문학을 규정하는 논의가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축을 이루었고 그 나름의 의의도 충분히 있다.¹⁰⁾ 하지만 서사의 시작과 종결에 나타난 수미상관적 구조, 독서와 쓰기의 일체화된 서사 전개 등등을 고려해볼 때, 『화두』는 과거와 현재의 공감적 소통과 화해로운 종합을 통해 새로운 소설 형식을 모색하는 미적 시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¹¹⁾ 이는 평생에 걸쳐 문학을 업으로 삼아온 한 작가의 미적이고 윤리적인 균형감각에 따른 결과인바, 문학사적 맥락에서 선배문인이라는 타자와의 균형 잡힌 대화적 관계를 통해 윤리성을 입증해보인 것이다. 특히 최인훈이 조명희의 『낙동강』을 기본축으로 삼아 문학 독서의 참된 가치를 찾아낸 것은 열락에 바탕한 문학 독서의 윤리적 지평을 열었다. 억압받아온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에 따른 혁명적 실천을 준비하는 주인공 박성운과 작가 조명희에 대한 공감적 독서는 인간 해방으로의 도정에 대한 열락의 교감을 보여준다. 선배 작가와의 미적 대화라는 유대성도 윤리적이지만 독서의 내용과 방식도 윤리적인 것이다.

4.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

『화두』에서는 집안의 장남인 주인공이 소시민의 징표인 안정된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월남한 가족들이 고통을 겪

10)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저를 들 수 있다. 김인호, 『해체와 저항의 서사: 최인훈과 그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2004.

11) 정영훈은 『화두』란 회상의 형식을 통해 자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설적 시도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한다. 이 작품은 기억의 더미들 속에서 존재하는 각각의 자아들을 인정하면서도 회상을 통해 하나로 묶어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정영훈, 『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 태학사, 2008, 248면.

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한다. 일상인의 도덕을 방기한 자신을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월남 이후 힘겹게 살아온 가족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종종 드러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 『화두』의 주인공은 그 사실 때문에 가족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는 해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참회하는 등의 모습은 결코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기 길을 끝까지 갔다는 것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문면에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인으로서의 만족감이 『화두』의 기조 정서이다. 주인공은 삶의 위안을 책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에서 찾았고 그것이 특별했기에 은근히 자랑스러운 것이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삶이란 혁명가의 태도이자 예술가의 덕목이기도 하기에 그러한 태도는 이해 가능한 바가 충분히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함께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주체성이 감성적으로 통합되어 서사화된 작품이 『화두』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¹²⁾

최인훈의 문학세계에서 『화두』는 주인공으로 표상되는 작가의 문학적 열정이 종합적으로 응결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 이전에 발표된 최인훈의 주요 작품들과 깊은 상호텍스트적 연관성을 지니면서도 작가가 살아온 세계적 냉전체제의 탄생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분단체제 문제를 최대한 폭넓고 깊이 다루어내고 있다. 최인훈이 『광장』에서부터 세계사적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에 따른 파행적 역

12) 정체성과 주체성의 차이를 변별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글에서는 자크 랑시에르의 입론에 따라 두 용어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쓰기로 한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체성(identification)'이란 '치안(police)'의 논리에 따르는 것인 반면에, '주체성(subjectivation)'은 '정치(politics)'의 논리에 따르는 해방과 차이성 그리고 창조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정체성은 고유의 몫을 분배하고 지정하는 것이지만, 주체성은 그러한 정체성의 논리를 교란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해방의 논리라는 것이다.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전면개정판)』, 길, 2013, 118-119면.

사 전개 그리고 그 속의 불행한 개인 등을 주로 서사화해은 만큼, 그것에 깊이 연루된 『화두』라는 작품을 같은 내용 차원의 맥락에서 읽어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작가가 50대 후반에 발표한 이 작품은 자전적 성격을 지니는 정도를 넘어 거의 최인훈의 자서전이라 판단될 정도로 작가와의 생애 연관성이 높다. “이 소설의 부분들은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지만 그 부분들의 원래의 시간적, 공간적 위치는 소설 속에서 반드시 원형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이 소설은 소설이다.”(『독자에게』, 1권, 19면) 이 비약적 진술은 오히려 『화두』는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면서 소설의 근대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낳았다.

흥미로운 점은 『화두』에서 독서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체강점기 선배 작가들의 작품 대부분이 자전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작중 주요 인물이 작가와의 친연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화두』가 그러하듯 말이다. 이광수의 『흙』, 조명희의 『낙동강』,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태준의 『해방전후』 등을 보면, 각 작품의 주인공은 해당 작가와의 친연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화두』의 주인공은 각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작가의 마음을 읽어나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최인훈은 소설을 읽고 쓰는 일을 일종의 연기(演技)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화두』의 주인공은 “모든 예술행동은 연기다.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2권, 42면)라고 하면서, 소설 읽기와 쓰기 역시 “굳은 것, 상투성에서 벗어나려는 몸짓, 그 몸짓 속에 간신히 긴장이 느껴지고 표현성이 엿보인다.”라고 규정한다. 『화두』의 주인공이 기존 선배 문인들의 작품을 깊이 읽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바나, 식민지 경험 및 분단체제 등의 세계사적 문제를 사유하는 독서 과정 전반이 『화두』라는 한 편의 소설이 되는 셈인데, 이 운동성이 하나의 연기라는 것이다. 그것에는 과거와 현재의 긴장이 숨어있고, ‘문학사의식’이라는 용어처럼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과 새로운 문학적 주체성 사이의 긴장이 숨어있다. 그 긴장의 서사적 구체화가 『화두』인바, 이 작품은 문학적 정체성과 주체성 간의 상호 수축과 긴밀한 집중, 그리고 새로운 주체성의 돌파구 모색에 따른 양자의 생산적인 갈등 관계를 잘 보여준다.

『화두』에서는 기억과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서로 얽혀들어들은 통합되어간다. 이 작품은 기억을 긍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일체강점기 선배 문인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독서의 기억이다. 현재의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로 풀어낸 독서의 기억은 정체성을 형성한다. 독자로서의 작가가 자신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문학적 정체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길흉화복과 조화를 한손에 쥐고 있는 존재거나, 법칙이거나, 어떤 소식이 발하는 목소리, 그것이 '뒤돌아보지 말라'의 세계다. 그런데 그런 존재나 법칙이나 소식이 모두 희미해졌거나 이미 간 곳 없어 보이는 시간을 사는 시대 '인간'은 어쩌면 좋은가. 그런 뒤돌아봄의 능력을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으니. '앞'에 무엇이 있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법칙이나 '예언'의 신빙성도 떨어진 시대에 인간은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가. 오직 '뒤' 밖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뒤돌아보는 것'만이 이 암흑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2권, 573면)

『화두』에서 즐기차게 등장한 주인공의 독서행위란 바로 '기억'을 통해 새로운 문학 상황에 맞서 가장 확실한 자기를 확인 및 정립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의 상징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문학적 정체성을 감정 공동체의 기억을 읽어나가는 문학 독서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화두』의 주인공이 수행하는 독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안팎으로 걸치는 때

우 웅장한 기억 읽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기억 읽기에는 감정이 필수적으로 작용하며, 공감에 바탕한 미적 전유의 독서행위를 통해 표현공동체의 문학사적 연대성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문학사적 정체성 모색에 속한다. 그런데 주인공은 그러한 문학 독서가 해방의 미적 체험을 갖게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또 그러한 독서가 곧 소설 쓰기가 되는 서사 형식을 창출해냄으로써 주체성의 문제도 불러들인다.

본질적으로 정체성 모색은 혼돈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의 전략이다. 세계사적 근대성의 질곡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겪어온 한국적 현실에서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말은 역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혼돈을 낳았다. 그것이 『화두』의 작가 최인훈이 처한 역사적 맥락이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에 찢찢 매기보다는 가장 확실한 과거를 현재에 소환하여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최인훈은 선택하였다. 즉 그 혼돈의 현실을, 파편화된 현실을 거대한 세계사적 지평 속에서 독서와 현실을 잇대는 방식으로 다듬어낸 것이다. 그리하여 통념적 소설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형식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최인훈만의 주체적 문학세계를 구축해낸 결과로 나타났다. 문학 독서가 곧 소설 쓰기가 되는 경지, 그것은 정체성이 주체성과 온전히 포개지고 단단히 결합하는 경지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화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이다. 그래서 『화두』의 주인공은 작품의 말미에서 다음처럼 부연설명을 한다.

나 자신의 주인일 수 있을 때 써줘야지. 아니 주인이 되기 위해 써야 한다. 기억의 밀림 속에 옳은 맥락을 찾아내어 그 맥락이 기억들 사이에 옳은 연대를 만들어내게 함으로써만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 그 맥락, 그것이 '나'다. 주인이 된 나다. 그래야 두 분 선생님을 옳게 만날 수 있다. 다음

소집이 오기 전에.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 쓸 수 있을 때.(2권, 586면)

서사에서 종결 부분은 서사의 욕망이 집결된 곳이기도 하다는 점에서,¹³⁾ 『화두』의 종결 부분은 작가의 욕망 혹은 주체의식이 담겨 있다. “이 소설은 어느 가을밤에 그렇게 시작되었다.”(2권, 586면)로 끝나는 이 작품의 종결 부분에서 보듯이, 서사적 종결이 마치 서사가 드디어 시작하는 듯하게 처리되어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화두』를 한편의 완결된 소설로 성립시키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소설 이전의 필요한 조건들과 등식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화두』는 ‘작가=독자’라는 등식의 재발견이라는 의미를 제시한 작품인 것이다. 독자의 독서가 정체성 탐색에 가깝다면 작가의 글쓰기는 주체성 모색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글쓰기 자체가 독서 과정을 선택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여 서사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즉 독서는 글쓰기 자체가 된다는 점에서, 정체성과 주체성은 통합된다. 결국 『화두』는 독자로서의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이 일치하거나, 다른 시각에서는, 양자가 온전하게 균형 잡힌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 문학적 노력의 결과물이라 규정할 수 있다. 『화두』는 문학사적 이정표에 대한 최인훈 식 모색의 결과물인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이 연구는 최인훈의 『화두』에서 두드러진 문학 독서 현상을 주목하여 독서가 글쓰기와 통합되는 것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

13)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17면.

왔다. 특히 전체 서사의 맨 앞과 맨 뒤를 공통적으로 가로지르는 조명희 소설의 인용에서 보듯이, 『화두』에서는 문학 독서가 비문학 독서와 다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작품의 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두』의 주인공은 자신의 독서와 창작이 갖는 근본적인 가치를 ‘문학사의식’에서 찾고 있다. 주인공은 문학사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선배 작가들의 문학작품을 깊이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미적 전유의 태도로 드러난다. 작품에서 그러한 독서행위는 근본적으로 타자로 빙의하고 환생하는 체험으로 서사화되는데, 주인공은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열락’이라고 거듭 규정하고 있다. 열락은 타자성과 함께 공감을 중요한 매개 개념으로 삼고 있기에, 이러한 열락의 문학 독서는 궁극적으로 윤리성을 지닌다. 나아가 선배 작가와 그의 작품을 독자 자신의 내면으로 불러들여 자신을 해방시키는 체험이 문학 독서의 열락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화두』에 나타난 문학 독서가 갖는 궁극적인 주제는 정체성과 주체성의 통합이고 화해로운 조화인 것이다.

창작 의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최인훈은 『화두』를 통해 결과적으로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델을 구축해놓았다. 골드만의 말처럼, 소설은 작가의 윤리가 작품의 미학적 문제가 되는 문학 장르이다.¹⁴⁾ 이 주장을 잘 음미해보면, 『화두』의 문체의 식에도 해당되는 지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선배 문인들의 작품을 읽을 때 『화두』의 주인공처럼 자율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몸을 통해 환생 혹은 빙의하는 체험은 대화적 성격을 지닌다. 이 작품에서 보듯이, 작가(인물)와 독자가 둘이되 하나이고 그렇지만 결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면서 스스로 다름을 찾아나가는 상태가 소

14) 뤼시앙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2, 19면.

설 독서이다. 그것은 문학적 대화의 본질이다. 대화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잉여의 차이를 항시 남겨두어야 하는, 그리하여 언제나 서로 다른 두 말이 마주보며 끝없이 소통하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화두』에 서사화된 주인공의 독서행위는 윤리적인 가치를 지닌다.

덧붙여 『화두』는 주인공의 독서행위가 갖는 강력한 주체성과 함께 깊은 감정의 공동체를 구축해냄으로써 서사 전반의 질적 유기성을 창출해내기도 한다. 이는 겉으로 얼핏 보이는 표면적 파편성을 극복해내는 깊은 마음(감정) 세계에서의 성취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작가-주인공-독자-화자'의 일체에 가까운 연계성은 『화두』의 실제 독자들의 독서를 심미적으로 풍요로운 경지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최인훈의 그 이전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화두』에 와서 특히 독서와 독자의 위상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서사가 풍요로워진 점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수용미학 등의 독자 중심 이론이 급격하게 부상하였던 90년대 초반의 한국적 분위기와 긴밀히 관련되는 문제인 것으로도 판단된다. 그 문제 역시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최인훈, 『화두』(1권/2권), 문학과지성사, 2008.

2. 단행본

강영안, 『주체는 죽었는가』, 문예출판사, 1996.

김인호, 『해체와 저항의 서사: 최인훈과 그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2004.

연남경, 『최인훈의 자기 반영적 글쓰기』, 해안, 2012.

정영훈, 『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 태학사, 2008.

H. 포터 애벗, 우찬재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R. G. 콜링우드, 김혜련 역, 『상상과 표현: 예술의 철학적 원리』, 고려원, 1996.

뤼시앙 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2.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전면개정판)』, 길, 2013.

폴 리콤프, 박병수·남기영 편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아카넷, 2002.

3. 논문 및 기타

권성우,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책과 독서에 대하여」, 『우리文學研究』제49집, 우리문학회, 2016, 199-228면.

손유경, 「혁명과 문장」, 『민족문학사연구』제63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323-347면.

윤지관, 「상품인가 물건인가: 국가경쟁력과 민족문학」, 『창작과비평』, 1994 여름호, 50-69면.

정미지, 「『화두』의 자전적 글쓰기와 ‘책-자아’의 존재 방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5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2, 203-221면.

정호웅, 「최인훈의 <화두>와 일제 강점기 한국문학: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제45호, 한중인문학회, 2014, 179-202면.

정호웅, 「최인훈 문학과 한국현대문학의 타자들」, 『우리말글학회』제68집, 우리말글학회, 2016, 439-463면.



<Abstract>

The Author as a Reader
—phenomenology of literary reading in Choi
In-hoon’s “*Whadoo*”—

Kim, Keun-Ho

Choi In-hoon’s “*Whadoo*” is a novel about reading. The main actor’s reading act overwhelmingly occupying a large part of the narrative is an important clue to interpret the theme of “*Whadoo*”. Especially, “*Whadoo*” is important not only because literary reading is different from other non-literary reading, but also because it is relatively larg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eeply interpret the true meaning of literary reading shaped in “*Whadoo*”.

The main character in “*Whadoo*” is looking for the fundamental value of his so-called reading and creative work in ‘literary history consciousness’. As a way of literary practice, the main character shows deeply reading literature of senior authors. This can be the attitude of aesthetic appropriation. Such a reading activity is basically formed as an experience of possession and reincarnation. The main character repeatedly defines the feelings in the process as a ‘delight’. This kind of reading has ultimately an ethical value. Furthermore, since the experience of liberating himself to borrow senior authors and his works is the delight of reading, ultimately it has the meaning of integration of identity and subjectivity. The ultimate meaning of

literary reading in “*Whadoo*” is the union of identity and subjectivity and reconciliatory harmony.

Choi In-hoon had built a good model of how to read novels through “*Whadoo*”. He made the model of reading novel proving that writer(character) and reader are not one but two, and the reader pursuit himself different subject. This novel shows that Choi In-hoon, as a reader, sought the milestone of literary history in addition to the ethics of literary reading.

Key words: Choi In-hoon, *Whadoo*, reader, literary reading, literary history consciousness, aesthetic appropriation, delight, ethics, identity, subjectivity

투 고 일 : 2018년 7월 30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1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